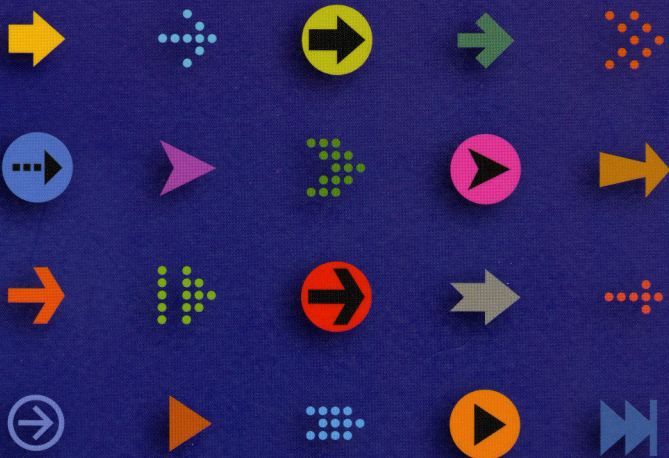


굿스피드의 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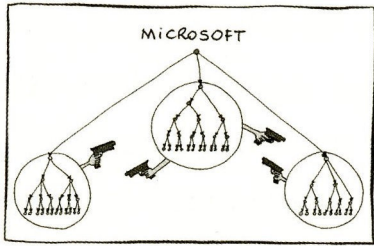
결국 스피드가 기업을 살린다!

“스피드를 바꾸자”라고 하면 “스피드에도 종류가 있나?” 하는 의문이 단박에 들 것이다. 그렇다. 스피드에도 종류가 있다. 시대에 따라 흥하는 스피드의 종류가 변천을 겪어왔고 개념도 여러 가지다. 우리는 지금 '3세대 스피드'가 흥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.

| 강우란 지음 |



우리가 알던 스피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!
4차 산업혁명의 시대, 진짜 필요한 스피드는 무엇인가?



자료: Manu Cornet, <www.bonkersworld.net>.

의사결정이 흔들렸다

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창업 시의 목표를 이룬 MS는 그 이후로는 자사의 지배적 위상 유지를 최고의 전략 목표로 삼았다. MS 내부에서 횡행하던 용어 중에 ‘전략세(strategy tax)’라는 말이 있는데, 윈도우와 오피스라는 지배적 전략에 혹시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 어떤 시도도 불허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미래 기회를 상실했다는 자조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.* 즉, MS 내에서는 어떤 것을 개발할지 말지 하는 판단의 기준이, 그 개발이 윈도우나 오피스를 강화하는 목적인가 아닌가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. 이런 일화도 있다. MS의 인터넷 브라우저 저 익스플로러의 에디팅 기능이 너무 낙후되었으니 개선하자는 제안

* “Microsoft at Middle Age: Opening Windows” (2015, 4, 4), *The Economist* 참고.